



그姿勢가端雅하며
露出된 兩腕의 艘細
한 맛이 古拙의 手
法을 보인다. 衣紋
은 通肩衣에 兩袖가
길게 垂下한 가운데
로 圓弧形의 曲線衣
紋이 段層으로 주름
지며 衲衣下에 또 다
른 옷을 입은 樣으

로 되었다. ② 足部는 缺失로 알 수 없고 頭後와 背面이 扁平하면서 우
뚝 凸과졌는데 胸과 腕 中間에 雙出한 突起物이 있어 背光에 接해 있었
던 痕跡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樣式上의 特徵과 構造上의 特色을 가진 點으로 보아 이 佛像
은 혹시 三尊佛의 脇侍菩薩立像이나 아니었던가 하고 新羅統一前後頃의
所作으로 推定된다.

註

- ① 江堂里에 所在한 江堂國民學校附近에서 金銅佛立像이 出土되고 既在
에 寺刹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現在는 아무런 遺跡遺物이 없다.
- ② 通肩法衣의 長袖가 兩側으로 垂下하고 流麗한 段狀彎曲衣紋이 주름
지고 그 衲衣下에 다른 옷을 입은 모습으로 옷자락이 들어나 보이
는 手法이 新羅全盛期의 佛像에서 많이 볼 수 있는 特色이다.

密陽 萬魚寺 三層石塔

鄭 永 鎬

慶南 密陽郡 三浪津面 龍田里 萬魚山 萬魚寺 ①에 三層石塔이 遺存한다.
現在의 寺刹位置와는 떨어져 있으나 石塔 뒷면에 建物址로 보이는 臺地

가 있어 이것이 本
來의 法堂址로 생각
됨에서 塔도 原位置
로 推定된다. 總高
三·七m이며 單層基
壇인 바, 四枚로 構
成된 (一邊長 一八
六cm) 地臺石위에 二
段의 角形받침을 마
련하고 그 위에 塔을
받고 있다. 基壇面石



은 四枚로서 「짜인」은 通式이며 幅二〇——二二cm의 隅柱가 刻出되었
다. 甲石은 二枚이며 副椽이 있고 上面에 二段의 角形괴임으로서 塔身
을 받고 있다. 各塔身에는 隅柱가 있으며 屋蓋石은 받침이 三段씩이고
一, 二層은 上面에 一段괴임으로 그 위에 塔身을 받고 있는데 三層은 二
段의 괴임이 있다. 露盤等 相輪部는 없으며 現在는 別個의 石材를 얹고
寶珠(?)를 놓았으나 磨損이 甚하다. 各屋蓋의 落水面은 傾斜가 急한 편
이나 轉角의 返轉으로 尖端에서는 平坦해졌다. 塔身과 蓋石이 若干의
破損이 있으나 全體의 構造와 手法으로 보아 均整한 麗代의 優作이라
할 것이다. 實測值(單位cm)는 基壇面石幅 一四〇 高六七·五 甲石長 一六
九 厚 一六·五

層	屋身의 高	幅	隅柱幅	屋蓋의 長	厚
一層	六一	七九·二	一九	一三六	三八
二層	二六	五九·五	二二	一一八	三六
三層	一一三	五一·六	一〇	一〇〇	三四

이 石塔에 對하여는 記錄이 없으나 萬魚寺에 關한 記錄은 三國遺事와
東國輿地勝覽 ②에 보인다. 三國遺事塔像第四「魚山佛影」條에 「古記
云. 萬魚寺者古之慈成山也. 又阿耶斯山.」……「萬魚山有五羅刹女.」……
「故東海魚龍遂化爲滿洞之石. 各有鍾磬之聲. 已上古記 又按. 大定十二年

庚子。即明宗十一年也。始創萬魚寺。棟梁寶林狀奏所稱山中奇異之迹。』
라 하였는데 여기서 大定 十二年은 金世宗 十二年으로 高麗明宗 二年壬
辰(一一七二 A, D.)이며 明宗 十一年은 大定 二十一年 辛丑인데 庚子年
은 大定 二十年 明宗 十年임으로 大定 十一年과 庚子 明宗 十一年의 三者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庚子가 大定 二十年인데 이것은 十二年의 誤記가 아
닐까 생각됨에서 三者를 符合시킬 때의 年代인 一一八〇年을 萬魚寺始創
으로 보는 것도 無理는 아닌 것으로 思慮된다. 따라서 石塔도 그 樣式手
法으로 보아 同時代作으로 推定된다. 現在 境內에는 當代의 遺物이 없
으며 塔前方에 長 四〇m의 石築이 있어 注目된다. 建築物는 約 四〇年
前에 建立하였다는 大雄殿과 彌勒殿③各一棟과 寮舍三棟이 있다.

註

① 三浪津驛에서 南北方約 八km 萬魚山頂에 位置한바 西向하였는데 이
周圍는 石洞으로 動的인 魚石이 數없이 散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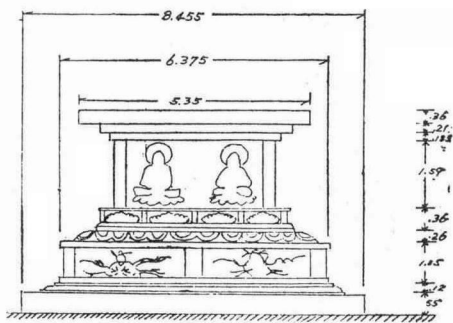
② 卷之二十六密陽(佛宇) 萬魚寺. 在萬魚山. (古跡)萬魚山磐石. 山中
有一洞. 洞中岩石大小皆有鐘磬之聲. 世傳東海魚龍化爲石. 我世宗
朝. 採之作磬不中律遂廢.

③ 堂內에는 自然巨石을 「彌勒尊佛」이라 稱하면서 信仰하며 太極道人
無極道人들의 住居處라 한다. 現住持 梁雲耕氏에게서 「萬魚山石佛堂
重修上樑文, 昭和八年癸酉十月十三日子時立柱上樑」의 墨書銘을 調
査할 수 있었다.

陝川 清涼寺 石造如來坐像의 臺座

申 榮 勳

指定物(寶物二六五號)인 이 新羅如來坐像의 臺座는 前부터 注目되어
왔으나 本部施設을 除去할 수 없어 궁금한 채로 지나왔었다. 多幸히
지난 七月 調査員一行이 住持를 說得시켜 그의 손에 依하여 該部分이
露出되어 調査할 수 있었으므로 간단히 紹介하여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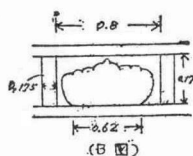


(A圖. 清涼寺 石造如來坐像 臺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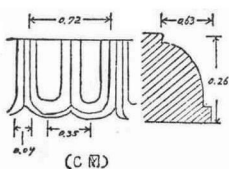
殿內板床 아래 숨겨졌던 部分은 眼象이 있는 곳부터의 아래쪽이었다. 方形臺座의 上臺石은 一邊이 五·三五尺(厚 三·六尺)으로 副椽을 가졌고 그 아래로 菩薩坐像이 새겨진 中臺石이 놓였다. 그것을 받는다 下臺石은 二段으로 되어 眼象이 一面에 四區씩 있는 上段과 八部神衆이 새겨진 下段으로 構成되었고 그 아래에 地臺石이 緊密하게 받쳐져 있었다. 그 밑의 基礎關係는 이번에 調査할 수 없었다. (A圖 參照)

眼象四區는 隅柱 혹은 撐柱와의 間地에 刻出되었는바 한쪽이 三顆씩인 蓮瓣形이다(B圖參照) 眼象아래로 二級의 段이 있고 거기서 부터는 넓적하고 雅淡한 蓮瓣이 새겨져 있다(C圖參照) 翻衣하는 모습의 八部神衆은 各面에 二軀씩 浮彫되어 있으나 保存狀態가 나빴었음인지 全貌를 把握할 수 없는 것도 있다. 地臺石은 位置에서 動搖되어 不整하다.

像과 光背의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像高 六·六尺 肩幅 三·四五尺 胸幅 二·一尺 膝幅 四·四尺 光背高 八·五尺 同幅 五·九五尺 同厚 〇·六尺(像·光背·臺座 모두 花崗岩製)



(B圖)



(C圖)